

2020 명동 빛 축제 명동, 빛으로 희망을 말하다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명동 빛 축제' 개최

다가오는 13일 명동 일대 거리가 따뜻한 빛으로 환하게 물든다.
중구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누기 '2020 명동 빛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셉으로 하는 포토존을 설치해 행인들이 잠시 쉬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은 명동 밀리오레, 엠플라자, 명동 예술극장, 명동 관광경찰서 4곳이다.



라이언 캐릭터 멜리가 설치돼 한층 더 화려하고 장엄한 '2020 명동 빛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 이번 빛 축제를 계기로 명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친 시민들과 상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온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를 보는 관점의 전환, '2020 부산 연구·개발 주간'

부산의 혁신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0 부산 연구·개발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연구·개발 주간'은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의 기초강연을 바탕으로 부산 출신 연구자, 기업,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이 주도하는 미래발전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K-드론관제시스템, 서울 하늘로 드론 택시 띄운다

11일 여의도서 K-드론관제시스템 활용 드론배송·택시 종합실증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추진 수직이착륙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eVTOL 기체의 도심 비행은 국내 최초이며 서울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 위치한 여의도에서 비행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증 전문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이관중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컨퍼런스에는 정부, 업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도심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2020 부산 R&D 주간 2020 BUSAN R&D WEEK. 행사개요: 미래를 보는 관점의 전환. 2020. 11. 13.(금) - 11. 14.(토)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Includes images of food and a gift box.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얼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 외 고양 영상밸리 보상 문제 원활히 소통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경기주 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의 성공적 유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원센터 내 창업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제1관교 20곳, 제2관교 11곳으로 31곳이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고 밝히면서 “북부 테크노밸리의 지원센터 입지도 미리미리 계획해야 판교처럼 지원센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런데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5년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

정하고 있지만,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19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GH가 계획을 수립해 더 많이 지원을 요청해야 현재 개발 중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GH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잘 감안해서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혁신 클러스터 조례에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지원 규정을 마련해 제대로 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오 후 질의에서 최승원 의원은 고양 영상밸리 보상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다. “GH는 최근가

지도 이주자 택지 및 협의자 택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현재는 앞선 안내내용을 반복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류월드의 사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주민들과 집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상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고양 영상밸리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KBS가 고양 영상밸리 입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물밑에서 오가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GH가 KBS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찬기자

임만균 시의원, ‘백년대계로서의 서울시 도시계획 이뤄져야’

시 재정확보 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은 지양되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2020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보상 예산의 과소 편성과, 시의 재정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급변 7월 1일의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공원 지정 시효 해제에 따른 사유지 보상 예산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118km² 중 약 59%에 해당하는 69.2km²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 총 13조 3천억원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20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는 고

작 104억원만을 편성했다.

계다가 서울시는 사유지인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의 6단계 상향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6단계 이상으로 상향 변경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문 일인데, 서울숲 현대제철 부지와외의 등가 교환 또는 등가 매매를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현재 152억원으로 추산되는 해당 사유지 가격이 4,427억원으로 2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 날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당장 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보상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해 한시라도 빨리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한다”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빠른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이나 용도변경 상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뤄내고자 한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소규모학교 각별한 배려 필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형평과 균형차원에서 소규모학교의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순위 변경 사유 중 소규모 학교가 제외되어 있다”며 “소규모학교가 배려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올해 충남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는 932건으로 이중 학교장 종결제 처분 비율은 33.8%인 반면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 처리 건수 비율은 66.2%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역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김석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초등 진단평가 결과 등, 읍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높다”며 지역별로 면단위 학생의 기초학력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병국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비대면 수업 방식을 콘텐츠 중심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재표 의원은 “공평고등학교 52개 실습실 중 최근 3년 이내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63%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안전관리 시설을 적시에 확보·점검해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 등 돌봄 취약계층 학생을 챙기는 교육복지사 인력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의원은 “올해 9월 30일 현재 총 폐교 건수는 264개로 이중 매각 처리완료 된 폐교는 224개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교육시설 활용 및 지역의 대표공간으로 활용 활용방안을 찾는 대신 무조건 매각으로 폐교제산을 처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의용소방대 인력 확충과 소방관서 신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지난 11일 수원남부소방서와 용인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인력 확충과 소방관서 신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찬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소방관 1인당 5,120여명을 담당하며 구급출동이 전국 1위인 곳으로 소방관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소방서”며 “소방관이 부족

한만큼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소대원의 수가 타 지역의 1/5 밖에 되지 않아 적절한 인력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는 “용인서부소방서 신축 면적이 당초 8천 5백평방미터에서 9천9백 평방미터로 늘어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서 신축인 만큼 충분히 확보를 확보해 안전체험관과 안전센

박상찬기자

터 등이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용찬 의원은 “수지 지역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소방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현장대응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대응단 건물 증설을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용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 지역문화예술인,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교육청·지자체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내실있는 혁신교육을 주문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군포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꿈의학교 운영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마을과 함께 하는 지역교육 활성화에 더욱 적극성 있

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영어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영어 외에 다양한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서로 어울려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교육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이들의 꿈과 진로 탐색, 예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조성해 줄 것

촉구했다.

국 의원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방과후학교 강사, 꿈의학교, 미술학교 운영주체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져 학교와 지역예술인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들이 지역교육공동체로 참여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관심 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인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헌정앨범 ‘소녀와 꽃’이란 음반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박상찬기자

오한아 의원, 세종문화회관 대표 작품기획을 위한 서울시 예술단간 협업체계 구축 해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극장으로서 공연예술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의 서울시예술단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초대형 하드웨어에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 내에서 예술단이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오한아 의원은 40여년에 역사성과 다양한 장르의 상주예술단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술단 고유의 대표 레퍼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9개 예술단 전체를 아우르며 예술적 성과를 책임지고 예술단간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즉 ‘총예술감독’제 도입을 검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 예술단은 예술단별로 단장이 방향성이나 레퍼토리 운영을 각각 따로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예술단별로 단장이 바뀔 때마다 작품의 성향이 달라지고 예술적 성취의 편차가 크게 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세

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총예술감독 선임, 예술단 공연 기획인력 확충 등을 통한 작품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을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의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 공연 기획 등에도 힘써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 예술단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최재은기자

송재혁 시의원, 서울시 쓰레기 연구 상설기구 제안

30년 전과 판박이, 닦쳐야 일하는 미봉책 지적

난지도 매립장의 한계점 도달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성상의 분석과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준비 없이 급하게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을 수립했던 1990년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종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분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의 서울시 쓰레기 정책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생활쓰레기, 일회용품,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라는 넘기 힘든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건립 당시부터의 문제를 되짚으며 인천시와 서로의 책임을 묻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이 한계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울시는 15개소 공공선별장을 운영하며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 자원화해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 기준 모호, 분리배출된 쓰레기 처리 공정의 문제 등으로 실제 재활용률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가까이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에 따르면 2009년에는 재활용률 68.1%, 소각률 18.8%, 매립률 13.1%, 2019년에는 재활용률 68.0%, 소각률 22.8%, 매립률 9.1%를 보여준다. 재활용률은 제자리, 매립률이 약 4% 감소했지만 소각률이 4% 높아졌다.

10년째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의 달성은 풀기 힘든 과제임이 분명하다.

송 의원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성 목표지만 제시하는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는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 비전을 제시했고 2020년에는 플라스틱 없는 서울 범업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1회 용품 50프로 감축, 재활용률 70프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매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크지 않다. 1년에 배출되는 1회용 컵의 경우 가맹점 25억 개, 국내 전체로는 250억 개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2013년 87만이었던 배달 앱 사용자가 2018년 2500만으로 급증했으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이미 1회 용품의 생산 이용 추세

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1회용 컵 재활용

률 5%, 플라스틱 전체 10%에도 미치지 않는 현 실정은 실제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닌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 공정, 재활용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기만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는 분리수거에만 방점을 찍고 재활용의 책임을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직매립 제로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고 싶은 희망 목표일뿐이다. 송 의원은 문제의 정점에 도달해야만 일을 하는 서울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계획과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은 찾을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쓰레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해 다양한 경우의 수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송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부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상처는 삭제할수 없습니다

이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부산시, 제10회 부산실버영상제 온라인 시상식 개최

'빛나는 인생 다시 한번 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청 자미디어센터에서 '제10회 부산실버영상제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실버영상제는 부산시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실버영상제조직위원회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작품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다. 영상 공모는 '빛나는 인생 다시 한번 큐'를 주제로 지난 7월 말 영상 제작 온라인 멘토 교육을 시작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됐다.

자유주제에는 영상 부문으로 만 60세 이상만 노인주제는 사진 및 스마트기기 활용 동영상 부문으로 나이 제한 없이 지역민 모두가 참여가 가능했다. 공모 결과, 총 185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시상 및 제10회 영상부문 대상 수상작 상영 등과 함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수상작 사진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



해 시상식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실버영상제가 부산의 대표적인 실버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김경수 도지사 "지역·소득 격차 해소가 지금의 시대정신"

표지식에故 박노정 시인 글귀 "6월은 뜨겁고 찰진 함성 헛되지 않았네" 새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역격차, 소득격차 해소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3주년 6월민주항쟁기념 표지식 제막식'에 참석해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 정신은 '생략 속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고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6월항쟁 정신

이다 민주주의의 시대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진주와 서부경남이 경남과 대한민국의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격차를 해소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87년 6월 당시 사그라들던 항쟁의 열기를 다시 일으킨 곳이 진주"며 "산업화와 민주화 앞장서 이끌었던 경남의 정신을 담은 표지식 제막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6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사를 표한 김 지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역사는 바로 퇴행한다는 것을 얼마 전의 역사에서 몸으로 익히 깨우친 바 있다"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예우하는 일과 이같은 역사를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정신을 물려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후원한 제막식에는 민주화운동 단체와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와 도의원 등이 참석

송인용기자

동작구, 청년을 위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채용 예정 20여개 기업 참여

동작구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공개채용, ㈜유니에스아이 등 20여개 기업이 온라인 면접을 통해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위해 전용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에서는 구직자의 구직 신청뿐 아니라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1:1 온라인 컨설팅과 운영 업체가 보유한 기업리스트 중 구직자에게 맞는 기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구인 기업에 대한 소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채용 설명회 및 Q&A 운영, 유튜브 기업설명회 개최 등 참여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고용지원정책 및 취업뉴스 제공 워크넷사이트와 연동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영상이력서 제작 특강 등 구직자 참여도를 높이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16일부터 사이트를 통한 구직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후 개별 면접 시간을 구직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면접은 해당 시간에 사이트로 접속해 줌프로그래밍으로 진행하기 때문

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구는 온라인면접이 어려운 청년구직자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 10시~오후 4시까지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오프라인 화상면접장을 운영한다. 단, 화상면접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이용인원수가 제한되어 사전신청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접 복장을 준비 못한 구직자를 위해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서는 무료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화상면접자 이용자에 한해 당일 신분증만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트도심전북부가 주최한 '2020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내일 배이스캠프, 동작구'를 주제로 한 동작 직업교육특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맞춰 청년구직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취업난 극복을 위해 청년과 주민 모두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아트숍 입점 작가들과 원데이 클래스

18일 ~ 26일 가족·유리·목공 등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11월, 나만의 소확행으로 한해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정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원데이 클래스를 연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아트숍 입점 작가들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원데이 클래스 대상은 가족지갑 유리접시 나무조형 팜아트접시 하트이니셜조개키링등 5개 분야다.

가족지갑 만들기는 18일 오전 10시에 유리접시 체험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한다. 나무조형 만들기는 19일 오전 10시, 팜아트접시 체험은 22일 오전 10시에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하트이니셜조개키링 만들기는 26일 오후 5시에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체험비는 클래스 별로 상이하며, 오는 16일까지 신청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내 손으로 나만의 공예작품을 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14일 개방한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은 '언어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우리 지역 출신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김수현 작가 드라마 전시실을 비롯해 공연 및 강연 등 대관 가능한 다목적 홀과 교육실 및 아트숍, 커피숍 등이 있으며 인근에 수암골까지 이어지는 1.3km의 드라마 거리도 조성돼 있다.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단막극 퍼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는 '제빵왕 김탁구', '남만닥터 김사부' 등을 집필한 강은경 작가의 공개 강연도 예정돼 있다.

최만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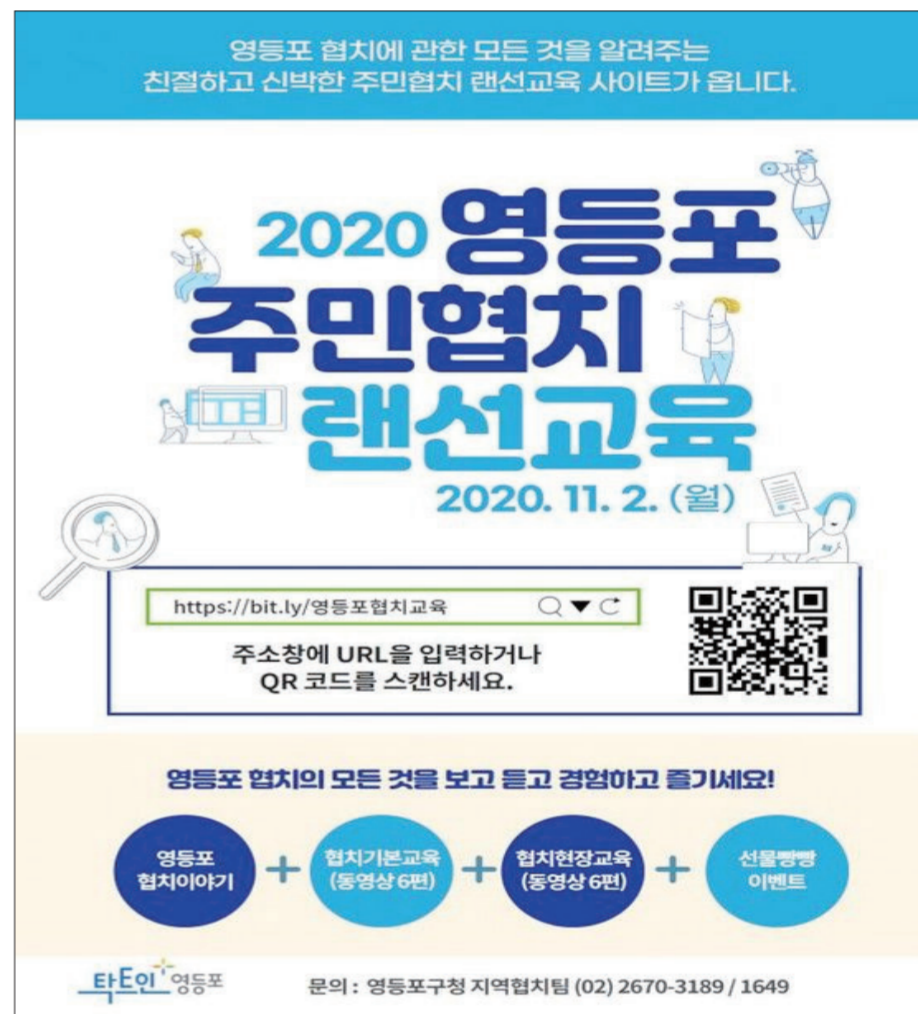
주민 협치교육도 '온택트'로... 영등포구, 주민협치 랜선교육

랜선교육 사이트 개설... 주민 협치문화 확산과 사회적경제 이해 높인다

영등포구가 지역사회에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구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지난 2일부터 '2020 영등포 주민협치·사회적경제 랜선교육' 사이트 운영에 나섰다. 2020 영등포 주민협치·사회적경제 랜선교육은 주민주도형 협치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민·관 협치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랜선교육 사이트에서는 협치기본교육 협치현장교육 사회적경제교육 등 분야별로 여러 편의 교육영상이 마련돼 있어, 이를 시청하며 협치와 사회적경제란 아직은 다소 낯선 개념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해 볼 수 있다. 풍성한 경험을 내건 이벤트도 선보이며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높여주는 노력이 돋보인다.

협치랜선교육 소문내기 협치영등포 좋아요 협치영등포 5형식 및 교육수강 인증 등 다양한 이색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커피 교환권 및 디지털 세트 교환권, 치킨 교환권 등을 증정한다.

이번 온라인 구는 홈페이지에 참여자들이 직접 듣고 싶은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창구를 개설해,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해



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링크 및 전용 QR코드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주민협치·사회적경

제 랜선교육은 주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이 주인 되는 더욱 성숙한 협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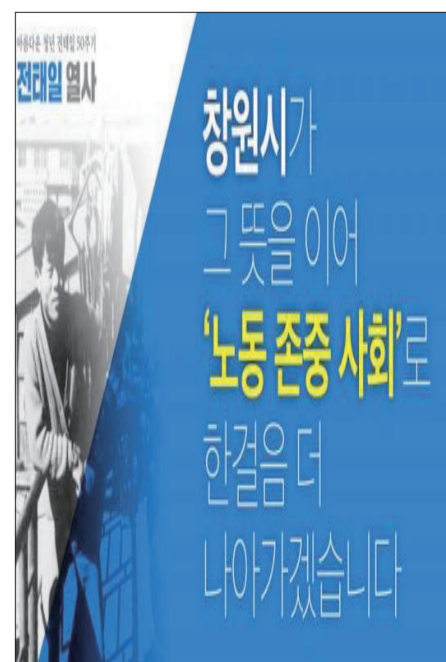
허성무 시장 "전태일 정신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에 노력할 것"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추모메시지 발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 뜻을 이어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모메시지를 발표하고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 시장은 추모메시지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세상에 커다란 울림을 줬다"며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권리에 대

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허 시장은 "그러나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이런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10만명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늦게나마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창원시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몽호기자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도산서원 도산서당농운정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안동시는 2018년부터 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370여건의 문화재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문화재청과 안동시가 공동으로 지정가치 자료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업하며 보물 지정을 추진했으며 2019년 '안동 청원루', '안동 체화정'의 보물 지정에 이어 올해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의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는 조선 중기 대표 문신·학자인 류성룡과 류진을 모신 병산서원의 누각 건물로 유생들이 유식하고 주변 산천의 풍광을 보며 시회를 가졌던 공간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압도적인 규모에 팔작지붕을 가지고 전체가 개방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한 병산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산서원의 맞은편에 있는 강과 절벽이 이루는 경승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의 조정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내는 전통적인 조경수법인 '차경'의 예를 잘 살린 누각이다. 만대루는 서원 누각이 가져야 하

는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경관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조경 기법을 잘 살렸고 인공적 조작과 장식을 억제하고 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성리학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자,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퇴계 이황이 말년의 10년을 보낸 곳으로 1561년 건립된 이후 철저한 보존관리 방침과 보수 절차에 의해 관리되어 건립 후 약 4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당건축의 초기형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간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서당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아직까지 서당이 보물로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로 문화재가 가지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는 퇴계 이황이 거처하며 공부할 수 없이 많으며 그중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예 유성룡



론에서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로 기존의 다른 서원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민도리식: 첨차나 익공 등의 공포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출목도 없는 결구법] 특히 농운정사의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했는데 높낮이와 크기를 조절해 서로 다르게 구성한 점은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젊은 시절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로 이 건물에서 공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중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예 유성룡

등 가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건물을 거쳐 갔다.이전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역사적 인물의 건축 관련, 유교문화의 건축적 표현 및 건축이력이 기록물로 남아 있는 등 가치와 특징들이 높이 인정된 건축물로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문화재청과 안동시는 11월 6일부터 30일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우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안동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코로나19 시대에 '괴짜가 세상을 구한다'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13일(금)~11월 14일(토) 동안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를 온라인 플랫폼인 "메이커 온 채널"(http://makerfestival2020.co.kr/)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는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서울학생들이 1년 동안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메이커 괴짜들의 가장 큰 축제로,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다. 괴짜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참여하며, 매년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영상 조회 및 체험키트 신청 등 부분 오픈된 온라인 플랫폼의 접속자가 단 이틀 만에 약 10,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괴짜축제 플랫폼인 "메이커 온 채널"(http://makerfestival2020.co.kr/)에서 괴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구성하여 송출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사전신청으로 수령한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집, 학교 등 안전한 장소에서 마치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괴짜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괴짜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구호를 표방하며, 메이커 전시체험, 메이킹 마라톤(특수교육대상자 포함), 학생 메이커 토크버스킹, 집콕메이킹(가족단위 참여), 전문가 강연, 메이커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작,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수행한다. 관람객은 각 팀의 모든 메이킹 과정을 현장 및 작중계를 통해서 마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이커 이벤트존'은 '나는 어떤 유형의 메이커인가?'를 확인해보는 "메이커 유형 검사",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소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Failed 게시판", 메이커 활동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장면을 공유하는 "메이커 짤방 게시판"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부담 없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메이커 이벤트존에 올라온 괴짜스러운 내용들은 "메이커 온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송출과 괴짜메이커들이 자신의 경험을 재미있는 토크쇼 형태로 공유하는 '메이커 토크콘서트' △자신의 경험을 강연으로 전달하는 '세바메(세상을 바꾸는 메이커)' △교육연구관 유만선, 로봇공학자 한재권이 강사로 참여하는 '전문가 온라인 강의' △13개 가족이 각자 집에서 모여야 머리를 맞대고 메이킹 미션을 해결하는 가족 메이킹 활동인 '집콕메이킹' 등을 "메이커 온 채널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서울학생 괴짜메이커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일반시민들과도 공유하고, 학생들 개개인 속에 잠겨져 있는 "놀라운 괴짜 근성"을 일깨워 도전정신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미래사회의 창조적 역량을 갖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메이커교육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들 저소득·고주거비로 고통...97% "내 삶에 도움"

12일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 열어 청년당사자 목소리 수렴, 내년 사업에 반영

서울시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첫 신청자 2만2,4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6.2%가 24㎡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14㎡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사는 비율도 13.6%에 달했다.14.6%는 지하·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신청자의 96.9%는 "청년월세지원이 내 주거준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6월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했다.신청자 총 3만2,401명 중 2만2,40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34,201명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는 22,405명인, 문항별로 응답자수는 다소 적을 수 있음.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천명 중 4,997명의 신청등록 사항도 함께 분석했다.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천여명의 경우 평균소득은 123.6만원으로 평균 임차보증금은 871.4만원, 500만원 이하도 49.1%에 달했다.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41만원이었다.5명 중 1명은 무직이었다.통계청 자료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공정한 주거 촉발정책의 하나로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을 마치고 9월부터 월세를 지원 중이다.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 결과 당초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 3만 4,201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신청기간에 '서울주거포털' 방문자는 66만 9천명에 달했다.시는 자격 요건, 소득제한 등 심사를 거쳐 5천 명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서울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 대상 청년들의 주거상황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청년들의 주거안정망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서울의 청년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 중인 가운데, 서울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들은 소득에 비해 37.6%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40㎡이하 월세평균은 보증금 1,000만원에 63만원인 반면, 지방은 660만원에 37만원으로 서울의 주

거비 부담이 지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을 12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시행 첫 해인 올해 정책추진 과정 중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청년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목표다.포럼에서는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유튜브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또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을 검색하면 된다.포럼은 서울 청년1인 가구 실태 및 '서울 청년월세지원'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에 대한 소개에 이어 정책 발전에 토론회로 진행된다.1부 '정책발제' :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청년월세지원사업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정책의 의미를 짚어준다.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2부 '토론회' : 이윤승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청년이 누려야 할 사회정책으로서 월세 지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합학과 교수가 '청년층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월세 지원', 남지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청년이 구상한 월세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에 참여한다.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의 신청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62.3%이었다.사무직이 23.3%로 가장 많았고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다.관대·영업·서비스직은 18.6%였다.최종 선정된 청년들의 주거유형을 보면 절반이 빌라 등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다세대주택 22.4%, 오피스텔은 15.0%, 고시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4.8%순으로 나타났다.평균소득은 전체 신청자 평균보다 8만원 낮았다.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신청자 평균보다 많았다.평균 보증금은 871.4만원으로 신청자 평균보다 566.3만원이 적었으며 관리비는 신청자 평균 6만원, 선정자는 평균 5.5만이었다.일반청년과 코



로나19 피해청년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이뤄진 신청접수 결과를 보면, 일반 분야 신청자들은 사무직이 많은 반면, 코로나 분야는 전문·자유직, 판매·서비스 분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 타격이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월세' 신청자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이었고 6개월 미만 초단기 거주자도 32.8%로 조사됐다.'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85.7%였다.지금 사는 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학교·직장과의 거리'와 '경제적 이유'가 90% 가까이 차지했다.거주기간 : 평균 거주기간이 14.9개월이다.거주기간 1년 미만인 비율이 20대는 59.6%, 30대는 37.1%로 특히 20대의 주거지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거공간 구조 :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85.7%였으며 가구 및 가전제품이 구비된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는 71.5%였다.연령대 별 원룸형 거주비율은 20대가 88.1%, 30대는 74.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원룸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임차공간 유형 및 주거공간 위치 : 24㎡ 이하가 66.2%이며 14㎡ 이하 협소주택도 13.6%였다.지하·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14.6%였다.성별로 반지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을 비교한 결과, 남성의 20.8%로 여성 11.0%보다 더 지하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임차주택 거주 이유 :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과의 연결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장과의 거리'가 주요 이유인 반면, 30대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님, 지인과 가까이 살기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의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부문에서는 '만족한다'가 44.8%, '별로 그렇지 않다'가 18.2%로 나타났다.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주거면적의 협소' 65.0%, '생활소음' 42.6%, '주택 노후화' 41.2% 순으로 나타났다.'청년월세' 제도에 대한 신청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신청자들은 청년월세 지원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월세 등 주거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응답자 90.4%는 현재 지원규모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91.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61.6%가 '적절하다', 25.4%는 '상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현재 지원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지원금액은 26~30만원이 56.1%로 가장 많았다.지원기간은 11~12개월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높았다.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만원 이상 소득자 구간에 높게 나타났다.적절한 소득기준으로 중위 소득 126~150%가 40.3%로 가장 많았다.'청년월세' 신청자의 86.6%는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주거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해 정책 인지도가 낮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청자들이 참여한 적 있는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수당,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역대청년주택, 희망두배청년통장, 취업날개사업 등 11개였다.향후 참여하고 싶은 주거정책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지원'을 꼽았다.김성수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62만명에도 지난 5년 사이 10만명가량 급격히 증가했다.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월세 신청자가 지원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천시는 지난 11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쌀, 원예·특작, 축산, 가공, 여성농업인 5개 분야 5명을 제2회 이천시 농업인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인대상수상자는 쌀분야 김광수, 원예·특작분야 허남윤, 축산분야 박찬현, 가공분야 서길현, 여성농업인분야 양순 모두 5명이다. 이천시는 그동안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9월25일 '이천시농업인대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습득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농업인들을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쌀분야 김광수씨는 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PLS전문교육 재배매뉴얼 준수 실천, 비육요전용 시설 및 육묘관리 문화 등 고품질 이천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이 인정됐다.원예·특작분야 허남윤씨는 현재 백사분화연구회 회장으로 분화 농가의 화합과 정보공유, 유통, 홍보에 기여 했으며 품목별 개화기 조절한 연중생산 작부



이천시, 농업인의 날 맞아 '이천시농업인대상 시상식 개최'

이천시농업인대상 시상식 개최

체계를 실현·보급해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이 인정됐으며 축산분야 박찬현씨는 HACCP, 깨끗한농장 인증 및 전국품평회 수상 등 우수한 농장관리와 초유공급사업, 미생물을 활용한 약취감소 등 친환경적인 농장조성으로 안전먹거리 생산과 축산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가공분야 서길현씨는 장호원황도 품평회 3년 연속 수상자로 유용미생물·BM활성제 활용 등 환경친화적 과일관리, GAP인증, 공동구매, 공선출하로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여성농업인분야 양순씨는 이천농특산물의 도농교류 홍보와 참여에 적극 참여해 이천농산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농촌여성 능력향상과 역량강화에 노력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천시농업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이 행복한 이천시 건설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강동구, 보내주신 사연으로 육아 공감 웹툰을 제작한다

행복한 양육 가정 지원 위한 육아 공감 시그널 · 17일까지 공모

강동구가 지역 사회 내에 양육 친화적인 사회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자 부모 및 양육자들의 육아 사연을 공모해 웹툰으로 제작하는 함께 나누는 "육아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관내 영유아 양육가정의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녀와 함께하는 육아 일상과 경험, 감동 등을 담은 사연 5편을 선정해 웹툰으로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동 사연을 함께 나눔으로써 혼자 하는 육아가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육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사연 공모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은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작성해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5편의 사연은 웹툰으로 제작되어 다가오는 12월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육아 공감 프로젝트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양육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양육하는 아이가 낳고 키우기 좋은 강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고양시, '2020 호호성공페스티벌' 성공적 개막

이재준 고양시장과 유튜브 신사업담당 박백하고 만만한 만남

고양시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1일 이재준 고양시장과 유튜브 신사업담당 '호호라이브' 생방송 토크쇼를 시작으로 '2020 호호성공페스티벌' 행사의 문을 열었다.

'100만 구독자 유튜브, 100만 시민 도시 시장의 뽀뽀하고 만만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생방송 토크쇼에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유튜브 신사업담당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청담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표 49인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창업지원 정책과 신사업담당의 성공창업 과정에 대한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로 전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희망은 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라는 저서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누구나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인 의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고양시가 제공하는 일자리 기금과 정책이 취·창업에 하고자 하는 청년·여성 등 고양시민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로 기획된 '호호성공페스티벌'은 구직자에게는 면접과 채용기회를, 예비창업자에게는 온라인 홍보 경험, 센터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온라인강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밀티 취업박람회로 기획됐다. '호호성공페스티벌'은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기며 하하 호호 웃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호호' 브랜드를 컨셉으로 2015년 시작된 이래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시 여성인력개발

센터 유희림 관장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에 맞춰 새로운 '호호' 캐릭터를 선보였다"며 새로운 '호호'가 홈페이지 곳곳에서 안내를 도와주고 참여자를 위한 깜짝 이벤트도 선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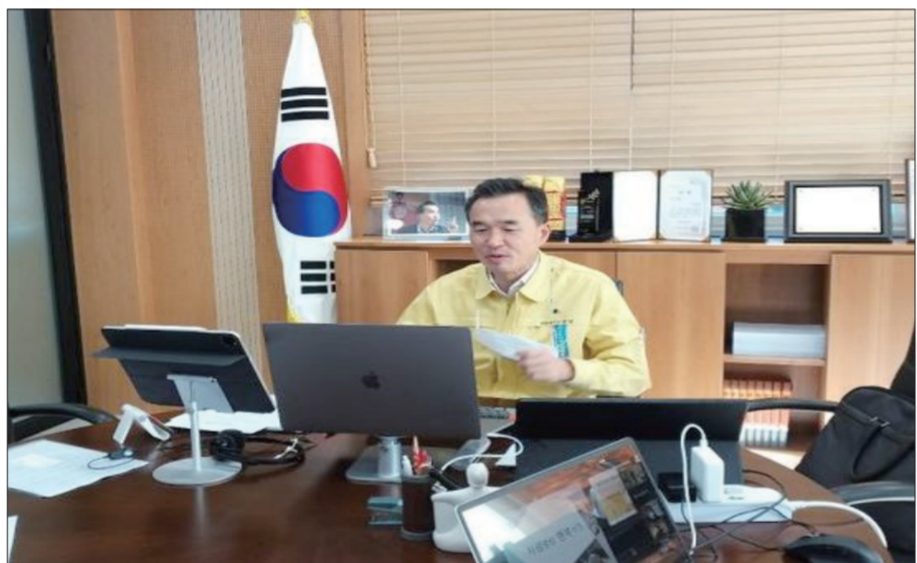
여주21C농업인대학 이항진 시장 특강

Zoom 통한 질의응답으로 학생들과 소통

여주21C농업인대학 총장인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1월 10일 여주21C농업인대학 4개학과 학생 119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시장 특강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이 얻었다. 학과별 임원 등 14명은 Zoom을 통해 참가하고 그 외 인원은 네이버밴드 참가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업인이 왜 배워야하는가와 기후변화를 통해 살펴본 여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학과별 임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특강이 여주21C농업인대학 교육생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선도적 농업경영인으로서 여주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숙 강사로부터 '성인지각수성 향상 양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하고 인상 깊은 강의였으며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서울시-아디다스 코리아, 안양천 노후 체육시설 새 단장 완료

아디다스 코리아와 함께 안양천변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완료

안양천변 체육시설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다시 공개됐다.

서울시가 '서울이 운동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디다스 코리아와 함께한 영등포구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운동하자 캠페인'은 민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스포츠 시설 환경개선, 기부문화 확산, 생활 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디다스 코리아와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안양천변 체육시설과 농구장·족구장의 바닥을 안전한 우레탄 바닥으로 재장비했다. 또한, 기존의 노후 농구 골대는 새로 교체하고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해 사고방지와 더불어, 밝고 역동적인 농구장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농구장 바닥에는 서울시와 아디다스 로고를 트릭아트로 표현해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3D 조형물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농구를 즐기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농구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구성을 했다. 기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 방향이 표시된 트랙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러닝이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재정비 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아디다스 코리아와 함께 노후 생활체육 인프라를 개·보수해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체육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잠실종합운동장 풋살장, 어린이대공원 풋살장, 진관 근린공원 풋살장, 성북종합레포츠타운 풋살장, 응봉체육공원 풋살장, 강서개화풋살장, 황금내 근린공원 풋살장, 어린이 대공원 풋살장, 응봉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구로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도봉구 무수천 농구장, 영

등포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등 10개 지역 19개 시설에 안전 패드 설치와 스포츠 환경개선 개·보수를 진행했다. 이번에 새 단장을 마친 영등포구 체육시설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야외 활동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디다스 코리아와 협약 체결은 올해로 마무리되며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체육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유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와 한뜻으로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참해 준 아디다스 코리아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설 개·보수를 통해 그동안 외부활동 자제로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생활운동 활동에 활력을 넣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한 생활체육 개·보수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애비뉴스완

광주시, 으랏차차 드라이브 마켓 개최

광주시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으랏차차 드라이브 마켓'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드라이브 마켓은 지난 9월 열린 '으랏차차 드라이브 마켓'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개최하게 됐다. 행사는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운영하며 광주시의 농산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시민 셀러가 참여해 더 풍성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에서 처음 생산된 감귤을 비롯해 우수한 농산물과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속양념 등 김장패키지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기미 쌀, 멸치, 돌김, 수제 도마,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돼 있어 방문 전에 상품리스트를 참고하면 좋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탑승객의 발열 체크와 함께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컬러임팩트 문외의 하거나 광주시청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약 후 행사장을 방문해 해당 부스에서 트럭만 열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쇼핑을 마칠 수 있다"며 "현장구매도 가능하지만 재고가 한정돼 있어 사전예약을 통해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관악구,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원 지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70만원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비 14억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월 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해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1월 16일 ~ 27일까지 14일간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



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 2,000개소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 11월 30일 ~ 12월 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앞장'

서구,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어르신 안전 '말씀'

인천 서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노인일자리 '편안한 집 만들기 사업단'의 협업을 통해 연희동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0 행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으며 물품 설치는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서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매년 봉사활동은 물론 연말연시 이웃돕기, 화재 가정 후원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인 인구 증



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방지 등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연희동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명을 대상으로 가스차단기 4명, 미끄럼방지 매트 2명, 안전손잡이는 4명에게 지원됐다. 서구는 매해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 '쿨 앤 클린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관내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전달에 동참해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서울소방 최초 여성소방관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

7년차 여성소방공무원 서울소방 최초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합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여성 소방관이 서울소방 최초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소방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 차 여성 소방공무원 소방교 최유선이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자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반인 또는 소방공무원이며 필기시험을 포함해 기초체력 측정에서부터 교통사고 구조까지 총 8개 과목의 실기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과정은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험과목은 기본역량 평가와 구조기술 평가로 구분된다.

기초체력 테스트는 20m 트랙에서 음원에 맞춰 왕복 오래 달리 60회 통과해야 하고 수영은 200m를 5분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2019년도 2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는 총 50명이 응시해 26명이 통과로 합격률 52%였으나, 올해 시행한 2급 인명구조사 시험에는 총 161명이 응시해 61명 통과로 합격률 37%를 기록했다. 이번에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을 합격한 최유선 소방관은 "왕복 오래 달리기, 수영 등 기초체력 통과를 위해 훈련을 거듭하면서 한계에 부딪혀 포기할 뻔했다"며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을 거듭하자 자신감도



되살아나 시험일까지 갈 수 있었고 인명구조 7개 과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유선 소방관은 기초체력 측정 외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과목으로 '맨홀구조'를 꼽았다. 맨홀 구조는 수직, 수평구조 기술을 응용한 종합구조기술이다. 맨홀 위에 역회전 방지용 삼각 도르래 시스템을 설치하고 맨홀로 내려가서 구조대상자를 지상으로 구조하는 기술로서 체력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초체력 통과 기준은 건강한 20대 남성이 반복연습해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성별 구분 없이 부여된 권한과 책임은 동일하다"며 "분야별로 재난현장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임실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전

농가 실태점검 강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높은 적법화 이행을 전망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277농가중 223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리를 완료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40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진행상황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 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방안에 의거해 진행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반사항을 해소해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 축사 농가 14농가는 현장확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축사육두수 5마리 미만

간축, 축사 폐쇄 등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기간 내 농가 수시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농가는 가축처분, 폐업, 부분폐쇄, 축사 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만일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도 병행 예정이다. 자체 위법요소 해소능력과 행정처분 농가의 경우 축사의 안전한 용도 변경 전까지 가축을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법 조치는 물론 축산부서와 건축부서 등 유관

부서와 정보공유해 축사 재운영 방지에 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군은 소와 돼지 등 종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예정대로 별도기간을 연장한 축사까지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임실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은 95%에 이를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양육환경 및 생활 실태 조사

용인시, 내년 1월말까지...취약계층 및 가정보호 아동 6062명 대상

용인시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취약계층 및 가정보호 아동 6062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아동들의 돌봄 공백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1687명 가운데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 526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이 가

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양육 환경을 점검한다. 이 가운데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선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사업에 연계해줄 방침이다. 또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내년 1월말까지 가정보호 아동에 대한 소재와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가정보호 아동이란 만3세부터 6세까지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에 가는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한다.

먼저 이·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 뒤 특

이사항이 발견되면 담당공무원이 재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조치 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보호자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나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동해시 위생업소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점검나서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위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중점·일반관리 위생업소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해시 내 유흥·단란주점, 150㎡ 이상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391개소와 목욕장업, 이용·미용업, 300㎡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 등 일반관리시설 418개소 등 총 809개소의 위생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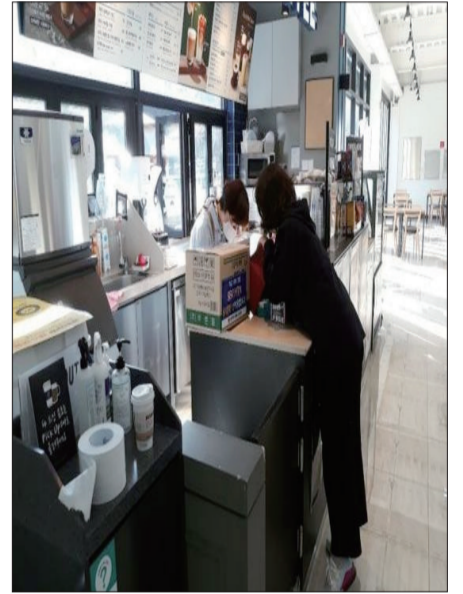
일반·중점관리시설 공통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 시설 내 소독제 비치 및 표본 소독 등이며 중점관리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거리두기·이용인원 제한 등이 추가된다.

시는 업소들이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벌일 계획이며 미 준수 업소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자 및 이용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강화군,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차단방역 총력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고삐 '바짝'

강화군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강화군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는 시점을 맞아 AI 유입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주요 철새 도래 경유지로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까지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제역 또한 2015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은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에 고삐를 바짝 죄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9일부터 강화대

교 및 조치대교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축산 농가에 방문하는 모든 축산관계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농장에 출입하도록 했다. 또한, 농가단위 자발적 축사소독을 독려하기 위해 소독약품 11톤과 생석회 97톤을 배부하고 인천 강화화진축협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소독용 방역방제기 2대를 한 지역에 동시투입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엽 축산과장은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뿐 아니라 민간인도 적극 협조 바라며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남/기자



화도읍,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강풍에 흥기로 돌변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도읍에서는 불법광고물 현장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채 자신들의 영업홍보를 위해 불법 지주 간판을 설치한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고장을 발부



한 12개 업소 중 8개 업소는 자진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4개의 미철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오는 11

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해파랑길로 떠나는 늦가을 경북 동해안 여행

동해안을 따라 펼쳐진 경북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눈부신 가을여행

경북 동해안 해파랑길은 291.2km에 이르는 해안길로 경주시 양남면의 지경방파제부터 울진군 부구삼거리까지 이어진다. 동해의 절경을 따라 이어지는 경북 해파랑길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소박하고 아늑하지만 때론 가슴 뭉클리는 눈부신 풍경을 사시사철 선물한다. 동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경북 해파랑길 중 경주시의 '파도소리길', 포항시의 '호미곶새천년길', 영덕군의 '블루로드', 울진군의 '관동팔경길'은 가깝단위 나들이 명소로 꼽힌다. 절기상 입동이 지난 이 가을에 어울리는 경북 해파랑길로 막바지 가을여행을 떠나보자. 경주시 양남면의 하서항부터 읍천항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이 '파도소리길'이다. 하서항에는 사랑을 약속하는 하트모양의 대형 자물쇠가, 읍천항에는 마을벽화와 양증맞은 읍천항 상징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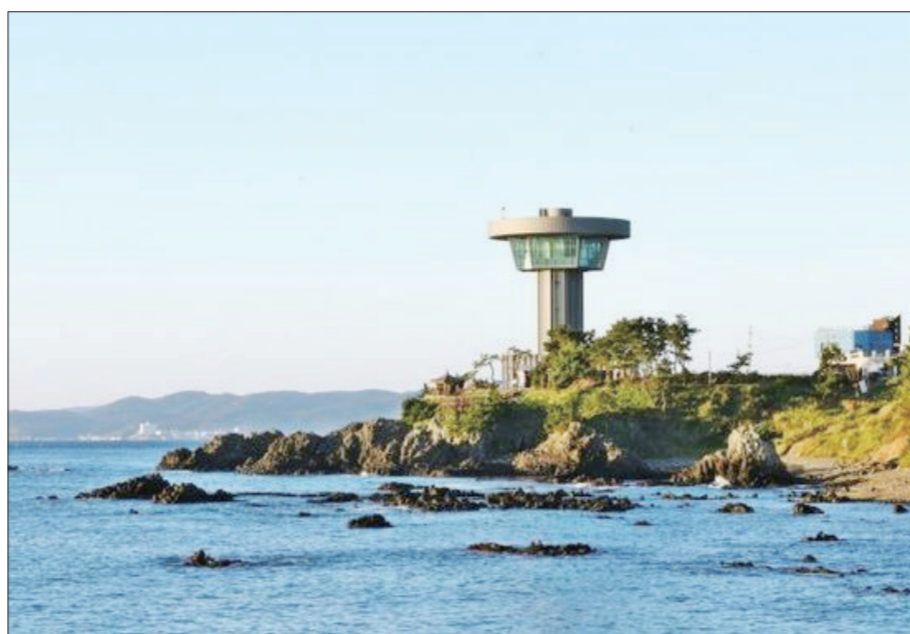
각각각색의 주상절리를 감상하며 해안가를 따라 가다보면 양남의 주상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상절리 전망대가 나온다. 또한 인근에서 잠전복과 참기마미회까지 맛본다면 최고의 바다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읍천항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가면 선무도의 총본산이 있는 골굴사가 있다. 골굴사는 응회암 절벽 석굴에 법당과 요사가 있는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이다. 아름다운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 아래 선무도 가을공연도 즐길 수 있다. 포항시 호미곶면의 대보리 정류소부터 구룡곶까지 약 5km 구간의 '호미곶새천년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안누리길이기도 하다. 과메기도 유명한 구룡포를 지나면 대보리 정류소로 올

수 있다. 호미곶새천년길의 중심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호미곶 등대가 자리한다. 지금은 등대를 포함한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단장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어서 아쉽게도 볼 수는 없지만, 상생의 손, 연오랑·세오녀 조형물, 바다생물체 화석 2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새천년기념관으로도 찾아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

호미곶에서 자동차로 30여분정도 가면 오여지 둘레 일원에 신라 진평왕때 장친한 오여사가 있다. 초입부터 알록달록 색채고운 나무들이 반기는 오여사는 당대의 가슴 원호, 자장 등이 기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오여사 절벽에 자리한 원호암, 지장암에서 고즈넉한 가을산사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에서부터 영덕지역 어촌의 삶과 전통어업문화를 담은 어촌민속전시관까지 약 4.6km 구간은 '블루로드 D코스'의 핵심이다.

어촌마을의 일상을 정감 있게 걸어보고 싶다면 이곳은 필수 코스다. 구계항은 영덕의 대표적 대게 산지로 마을을 부드럽게 둘러싸고 일어난 농산과 솜털처럼 유연히 출렁이는 너울이 인상적이다. 포구에는 수십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는 크고 작은 생선 횃집이 즐비해 항상 활력이 넘쳐흐른다. 소규모 해수욕장인 남호해수욕장을 지나면 삼사해상산책로가 나온다. 부채모양을 하고 있는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보면 바다와 하나 됨을 만끽하게 된다.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자동차로 30여분정도 가면 옥계계곡을 품고 있는 팔각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드라이브만으로도 단풍의 절경을 맛볼 수 있다. 팔각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각종 기암괴석과 급경사, 암벽 등으로 인해 산세가 험한 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이르면 수려한 경관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울진군 평해면 월송정에서부터 근남면 망양정까지 약 25km 구간이 '관동팔경길'이며 이곳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안누리길이기도 하다. 관동팔경길은 시작점과 종착점 2곳만 찍어서 가도 좋을 것이다. 가는 길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시원한 바다를 느껴보자. 월송정은 소나무 너머에 있는 정자라는 의미로 해안을 앞에 두고 소나무 숲을 뒤로하고 있다. 뻗뻗하게 들어선 소나무 사이사이 산책로를 거닐면 치유의 숲이 따로 없다. 망양정은 옛날부터 해돋이와 달구경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정자에 오르면 주위 송림에 둘러싸인 언덕 아래로 완곡천의 모습과 망양정 해수욕장의 백

사장 그리고 한없이 넓고 큰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참고로 울진에는 대구와 북어 요리가 일품이다. 망양정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가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가 있다. 불영사는 해발 653m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그야말로 산과 하나 된 곳이다. 불영사 아래에 있는 불영사계곡은 국가지정명승 제6호다. 기암괴석과 깊은 계곡, 푸른 물은 가히 절경이다. 저마다 가을은 계곡 곳곳을 물들이고 있는 단풍 덕에 또 다른 세계를 선사하는 곳이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에서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시원한 바다바람에 날려버리고 화려하면서도 고즈넉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힐링과 충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는 동해안에 매력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안동, 세계관광 리더들과 코로나시대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권영세 안동시장은 한국 관광도시를 대표해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압포트 웨비나에 참가했다.

권 시장은 안동 소개를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1969년 국제관광기구가 설립한 압포트는 세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회로 59개국,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제11회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중 한 세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 관광산업에 길잡이가 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필립 프랑수아 회장을 비롯해 전 UNWTO 사무총장을 지낸 프란체스코 프란지올리니와 탈립 리파이, 비레인 문화관광, 자메이카 관광부 장관 등 세계관광을 이끌어 가는 인사 11명이 참여했다. 권 시장은 오후 10시부터 이어진 파트2 안동사례 발표 순서에서 안동이 보유한 4점의 세계유산과 1점의 세계기록유산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도시들과 교류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광 부흥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패턴을 주도하는 M·Z세대를 겨냥한 고객과 숨겨진 관광자원 활용사례 등 독립공간에서 IT기술과 연계해 여유를 즐기는 안

동시만의 자연 중심 바이러스 프리여행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넘어 국제관광 업계 회복을 위해 세계의 문화가치가 담긴 문화관광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협력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세계 도시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홈페이지 및 게스트하우스 네트워크, 각 협력 도시 고유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벤트형 네트워크 등 문화도시 간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 여러 나라가 민박 브랜드를 만들어 국가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인들이 새로운 유형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1세기 코로나19는 한 세기를 지나 또 다른 시련을 주고 있지만, 인류 역사가 그러하듯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것을 믿는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압포트 웨비나에 안동이 한국의 대표관광도시로서 참석해,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함을 역설했다"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내년도에 출범하는 통합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사상 첫 대상 영천 농업 눈부신 성과

영천시, 농정평가 7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영천시는 11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분야에 영천시가 사상 첫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2014년부터 우수상 및 최우수상을 2019년까지 수상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경상북도 농정평가는 23개 시·군의 농정업무의 활성화를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시책 개발 추진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한 해 동안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 농촌개발, 특수시책 등 6개 분야에 대해 예산확보율, 역점시책 및 정부시책 추진실적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영천시는 그간 체계적인 농업정책 방향 수립으로 농식품관련 기업 MOU체결, 총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같은 공모사업 선정과 농기계 임대료 50%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된 특수시책을 포함해 여러 시책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 농업 최고의 영예인 농업명장 과수분야에 신종협 씨가 선정됐다. 신종협 씨는 경북사과재배신기술도입과 기술전파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한반식/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싼타' 딸기, 벌써 출하 시작

'싼타' 딸기 11월 5일부터 출하. 단단하고 저장성 좋아 수출용 적합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자체 육성한 딸기 품종 '싼타'가 지난 1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11월 중하순이후부터 생산되지만 신타 딸기는 국내에서 출하가 가장 빠른 품종 중 하나로 10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신타 딸기는 휴면이 짧고 화아분화가 빠른 품종으로 1화방의 조기 출뢰성이 좋아 조기 출하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품종이다.

또한 60~70% 착색 시 수확을 해도 당도가 유지되며 경도가 높고 저장 유통성이 좋아 해외 수출용으로도 적합하다. 2013년부터 신타 품종의 장점을 알게 되어 8년째 재배하고 있는 군위군 장물환씨는 지난해에는 10월 22일 첫 수확을 했으며 올해는 11월 5일부터 수확을 시작해 일반 다른 딸기 품종보다 조기 출하로 15%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타 품종이 국내 품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판장에서는 신타 중심의 경매가 이뤄지다 보니 최근 육성



된 신타 품종들은 품질만큼 가격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타 품종은 다른 품종이 출하되지 않을 때 조기출하를 통해 가격을 높게 받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장주 장물환씨는 "경상북도에서 육성된 신타 품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내 육성된 다른 품종보다도 고소득을 올

릴 수 있는 '싼타'의 매력에 빠져 수년째 재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홍집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출하가 빠르고 고품질의 신타 품종을 도내 농가에 널리 보급하고 고품질의 과수 품종을 적극 육성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2020 경주마라톤 언택트 레이스' 성황리 막 내리

천년고도를 '언택트'로 달리다경상북도와 경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동아일보 2020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14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10월에 열리던 대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신개념 마라톤 대회로 치러졌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틀 만에 마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펼쳐진 대회는 모바일 러닝 앱을 활용해 참가자가 원하는 코스를 달린 후 완주기록을 대회사무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5km와 10km 2개 종목에 3천 명이 참가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직접 선정해 달렸으며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함께 참가기념품인 음료수팩과 완주기념품 등이 지급됐으며 '2020 경

주마라톤 언택트 레이스'와 '2020 서울마라톤 언택트 레이스'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동아일보 러너' 스페셜 메달이 추가로 주어졌다. 또한 '추천코스 달리기', '핑크몰리길 완주', '신라의 달밭 달리기', '기념품 언박싱', '포카리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코로나19 극복 추첨' 등 다양한 릴레이 이벤트도 진행돼 더욱 풍성한 대회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국 어디서나 달리면 되는 다른 비주요 대회와 달리 4개의 추천코스를 선정하고 기간을 2주로 늘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등 차별화 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동아마라톤 사무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보건, 철정대, 강변 등 경주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4개의 추천 코스를 선정했으며 보건호 코스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으며 2위는 강변 코스, 3위

는 철정대 코스 등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는 10km 2,130명, 5km 799명으로 완주율은 84%로 지난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회부터 시행된 러너는 362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은행나무 단풍이 유명한 윤곡서원과 서면도리마을, 경주의 각각각색 아름다운 둘레길과 예쁜 꽃들이 흐드러진 철정대 주변, 알록달록 단풍이 든 보문호수가 등 아름다운 경주의 가을 풍경과 곳곳에 보이는 세계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여유롭게 달렸다. 언택트 방식으로 달리며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을의 정취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동아일보 2020 경주마라톤 언택트 레이스'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또 하나의 우리의 일상이었다.

송인용/기자

'홀로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Day'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코로나19바이러스를 희망 바이러스로

영양군이 주관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11월 11일 실시했다.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70세 이상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홀로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마다 시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11월에서야 두 번째 생신상을 차려 줬다. 이 사업은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손수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축하를 해주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

현했으며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생신상을 받은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외로웠는데,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신 여성단체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외에도 관내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매주 1회 사랑의 반찬 나눔지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참여한 김대연 대한적십자영양군지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시기, 앞으로 더욱더 내 부모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을 살피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단순히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아닌 어르신들께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 한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국내 최고 건축행사 '2020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올해는 경남에서

11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국내 최대, 최고의 건축문화 행사인 '2020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올해는 경남에서 개최됐다.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한국건축가협회 주관하고 한국건축가협회 경남건축가회가 주관해서 진행되는 이번 '2020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당초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행사가 취소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행사로 전환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 건축문화 축제인 만큼 '젊은 건축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까지 다양한 작품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못지않은 알찬 내용으로 마련됐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일반·특별·기획' 3가지 부문으로 전시되는

데, 이번 행사에서 일반전시는 건축대전일반공모전과 올해의 건축가100인전 등으로 특별전시는 젊은건축가상 등으로 전시됐으며 기획전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건축가회'의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고분, 마을, 사찰, 향교, 서원 등 여덟 개의 주제의 경남 전통건축을 소개하는 특별주제전도 마련됐다. 특히 '경남건축가회'가 선정해 기획전시는 '건축 + 주: 사람, 거주, 경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건축+는 건축행위자로서 '건축가·건축주·시공자' 등 각기 다른 입장에서 건축의 의미를 드러냈고 건축+는 우리나라 대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의미를 변화와 발전상으로 보여줬으며 건축+는 경남의 해안선을 따

라 형성된 도시의 특성과 가치를 조명했다.이번 '2020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건축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온라인 전시라는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해 경남의 건축을 누리소통망으로 전세계에 알리도록 구성했다.김경수 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우리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말할 때 건축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 건축은 우리 삶과 공동체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맞아 건축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며 건축물의 공공성 확대도 더욱 중요해졌을"을 강조했다.이어 "이번 행사가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응원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송인용/기자

홍천한우, '2020 TV조선 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홍천한우가 3년 연속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홍천한우는 한우 사양 최적의 기후요건을 갖춘 천혜의 지역인 홍천에서 홍천군과 강원대학교가 협력 개발한 알코올 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체계적인 헬스관리와 엄격한 사양관리로 최고급 육질을 자랑하는 고급육 브랜드이다.사양 : feeding, 飼養 가족이 필요로하는 영양소를 알맞게 공급해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을 충분히 해 가진 바의 유전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관계자는 "3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인증 받은 만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를 육성하겠다"며 "유통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홍천한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0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은



지난 10일에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TV조선 경영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향상,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이동원/기자

가정에서 알아보는 어린 물고기... '해양자연사 앳 홈'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기획전 연계 체험북 활동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전 '유치한 물고기'와 연계한 체험북 '해양자연사 앳 홈'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북은 어린 물고기의 탄생과 성장, 보호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어린 물고기에 관한 선다형 문제, 스티커를 활용한 꾸미기, 선 잇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에 걸쳐 선착순 100가정씩 총 200가정에 배포될 예정이다.

6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오는 11월 17일

과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유치한물고기' 태그와 함께 가정에서 체험북 활동을 즐기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의 체험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기념품을 발송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제1회 참여자는 올해 12월 11일까지, 제2회 참여자는 내년 1월 29일까지 해당 조건을 갖춰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정승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힘든 가정에는 이번 체험북 활동이 각자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해양생물과 자연사를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안동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동시는 전기·수도·가스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의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이다.간축률 5% 이상인 참여자가 지급대상이며 연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현재 안동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전체 76,548세대 중 약 7%인 5,513세대이며 간축실적에 따라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신청은 가정의 전기·수도·가스 고액변환을 확인해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동일 세대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가입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인센티브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12월 4일까지 개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민들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동



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항공·여행상품 할인 판매행사 '다시 날자 항공여행마켓'

부산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 및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및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항공공사, 벅스코 등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다시 날자 항공여행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김해공항의 운항 정상화와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김해공항 취항 항공사,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가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추진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부산지역 대표 행사 중 하나이다. '항공여행마켓'에는 부산 거점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 국내 대표 LCC를 비롯해,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2019 세계 최고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 내년 부산발 유럽 직항노선에 취항 예정인 핀에어 등이 참가한다.또한, 국내 대표여행사 모두투어와 부산지역 5성급 호텔 5곳이 참여해 다양한 국내·외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국비 지원금이 할인액으로 적용되어 시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업체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같은 행사장에서는 벅스코가 주관하는 '2020 어느 아름다운 날' 행사가 개최되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이는 일반인 판매자 150팀의 중고물품 거래 마켓과 유명한 기부물품 특별판매전을 통해 마련한 구부



금을 취약계층에 기부한다.연말을 앞두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 한 해 이웃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뜻깊은 행사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여행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을 이겨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항공권, 여행상품을 구입만 해도 여행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공 수요 정상화와 예전처럼 시민들이 공항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국제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객이 급감한 김해공항의 운항 정상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입국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또한, 위축된 항공여행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항공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영/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2020 전남마을 박람회' 17일 팡파르

시군대표 22개 마을, 숨겨진 가치 찾아내 관광자원화

전라남도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마을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0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열릴 이번 박람회는 '함께하는 전남, 찾고 싶은 마을'을 주제로 펼쳐지며 도내 22개 각 시·군을 대표한 마을이 참가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피스남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17일에는 22개 마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함께 마을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1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마을 대표들이 참여한 퀴즈대회, 국악 공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도 이어진다. 이번 박람회는 각 마을이 가진 독특한 문화, 역사 등 문화적 콘텐츠를 탐사·발굴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로 전남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에 소개될 목포시 만호마을, 여수시 당머리마을 등 22개 마을은 시·군 추천으로 선정됐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면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거나 마을 전통을 살려 공동체 문화를 잘 이어오고 있는 마을 마을 유래와 설화 등 오랜 문화와 이야기가 살

아 숨겨진 마을 농악·길쌈놀이 등 전통 공연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생활 속에서 재연한 마을 등이 지역 대표로 뽑혔다. 박람회에선 22개 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뤄지며 마을당 3분가량의 영상도 선보인다. 또 마을이 가진 한옥 등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힐링 명소를 각광받은 마을들도 참여해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정명섭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마을은 역사의 근원지이자 공동체 문화의 모태로 영속성이 훼손돼선 안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마을을 지켜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마을로 육성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정부차원 협조 요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현안사업 설명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차례로 만나 우리시 현안사업 당위성과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이 요청한 현안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이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올해 1월 공모 선정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지방 특색이 반영된 사업예산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며 도시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 개선'에 대한 정부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목포역은 지난 1979년 7월 신축·완공한데 이어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화되고 비좁아 이용객 불편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또한 KTX 수요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어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다. 목포시는 이런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기능개선을 통해 KTX를 확충하고 역사 현대화와 유희부지를 활용해 공원,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게 시의 구상이다.

김종식 시장은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자기만의 색깔을 담은 전남 학생들의 저력과 열정"

전남교육청, 2020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우수사례집 발간

전라남도교육청 2020학년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 교육현장에 올바른 청미프 활동상을 제시하고 홍보하기 위해 2020 청미프 우수사례집 '도전, 청춘의 기록'을 발간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전남 학생교육원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 팀의 활동 사진을 수록하고 인터뷰 형식의 내용으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 2년째 접어든 청미프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동성과를 공유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순천용당초-Y.T.K 여수북초-오래5 프렌즈 황전초-칠색초의 여행 고희도덕중-적산 레인보우 순천여중-Dream Girls 완도중-완도 어벤져스 하당중-여울뮤지컬

드 문태고-High Dreaming 팀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여수정보과학고-기억하는 아이들 여수화양고-시간을 달리는 소녀들 여당고-너나들이 여당고-향긋봄 합평고-ABC Team 합평학다리고-소녀들의 5·18 아트포마을학교-아트포 앙상블 등의 활동상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우수사례집과 같은 보고서 형식 외에 각 팀의 개성을 살려 활동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UCC, 포스터, 로고 7행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 자료집은 전남형 학생중심 체험프로그램인 '청미프'를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것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청미프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완도군, 서울시 양천구와 상생 발전 손 맞잡다

2014년 첫 교류 시작, 자매결연으로 공동 번영 기대

완도군은 지난 11일 완도군청 상형실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오늘 자매결연 체결은 양천구와 2014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의 결실을 맺는 순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사업을 추진해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가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바다와 섬이 아름답고 우수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상생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윈-윈 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도권 지역 특산물 판촉 확대를 비롯한 행정, 관광,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완도에서 개최해 자매결연 도시 완도를 바로 알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진도군, 가래떡 나눔 행사 펼쳐



진도 쌀로 만든 가래떡 드세요

진도군이 군청 현관에서 진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11월 11일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진도 쌀로 만든 가래떡을 진도군청 현관에서 나눠줬다.

가래떡 데이는 11을 뜻하는 한자 '11'을 합치면 흙 토자가 된다는 점을 착안해 지정됐으며 우리 쌀로 만든 고품질 음식인 가래떡을 주고받

는 취지로 시작됐다. 출근길에 가래떡을 선물 받은 공직자들은 "이번 행사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일 년 내내 모내기부터 벼 수확까지 고생하신 농민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냉해와 폭우, 3번의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어 다행이다"며 "진도 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가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전남 '오피스인재 한마당'...올 새천년인재프로젝트 결실

올 오피스인재 99명 축하 자리... 자긍심 높일 프로그램 구성

전라남도가 11일 올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2020년 새천년 오피스인재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가진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형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형관 현대상호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오피스인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가 올해 최초로 지난 7월부터 8월 개최한 '전라남도 새천년 오피스인재 발굴대회'에서 선발된 99명 인재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인재들은 최장 10년까지 재능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전문가 컨설팅과 선후배 멘토링, 수련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오피스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최소화하고 오피스인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발굴대회 전 과정을 보여줄 '100일간의 대장정' 영상과 함께 오피스인재 99명이 화면을 통해 일일이 소개됐으며 도청 내 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34명의 오피스인재들이 참여해 시련을 딛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자는 내용의 작은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의 대미는 현재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귀빈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함께한 '희망의 별' 점등 세리머니로 장식됐다.

행사 중 윤태원 ㈜보성 대표이사 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억원의 장학기금 기탁식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서남해안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에 참여한 ㈜보성은 지난 2009년도에 1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역경과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때 진정한 오피스인재가 될 수 있다"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꿈과 자기 실현을 위해 열정을 쏟아라"고 강조했다.

김영민기자



김영록 지사, 동부권 방역 공동협력체계 구축 간담

여수·순천·광양 3개시장 공동 방역체제 유지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부터 동부권 지역에서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우려해 3개 지자체 시장과 '동부권 방역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순천시, 정현복 광양시장, 서은수 여수부시장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로 구성된 동부권 방역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코로나19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발생된 지역감염이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공동생활권인 3개 시는 동시 다발적인 전파위험을 우려해 긴밀한 공동협력과 함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후 행사·모임을 통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고 계절적으로 밀집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파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절기 들어 실내 활동 증가와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 감염 위험이 커져 각종 연말행사들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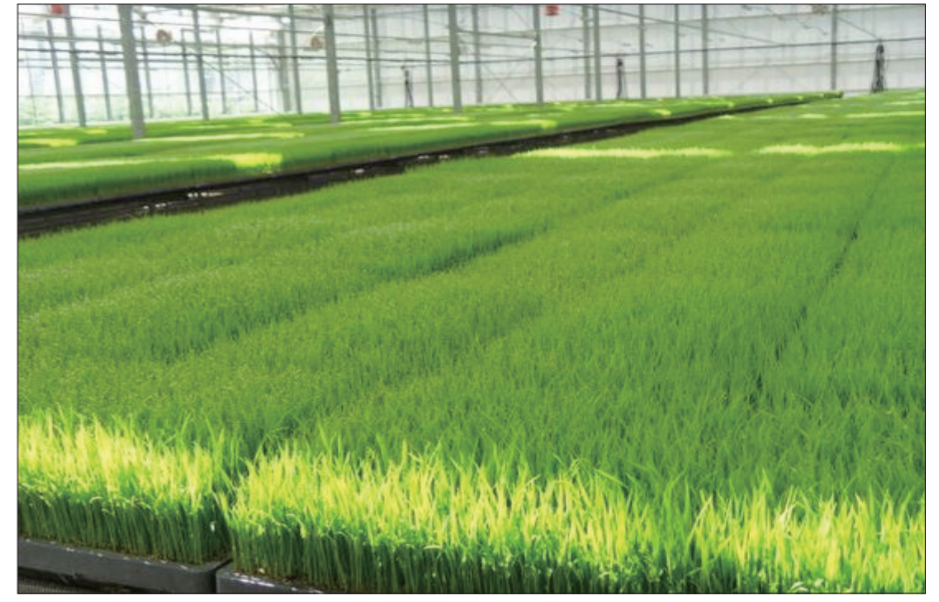
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는 지역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와 역학조사관을 신속히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펴고 있다. 동부권 지역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전문 인력을 늘려 지난 10월 29일부터 6천 58건

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이중 8건을 '양성' 판정한 바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행정과 지역민 모두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동부권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방역역량을 총 동원해 각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3개 시장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남원시, 2021년 벼 공동육묘장 공모사업 선정 쾌거

남원농협 1동, 지리산농협 1동 선정 도비 1억2천6백만원 확보



남원시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적기 영농 지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쌀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에 지난해 공동육묘장, 무인헬기에 이어 2년연속 남원농협과 지리산농협이 선정 됐다. 시에서는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급년 4월 유래없는 냉해로 개별농가들의 벼 육묘실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부터 벼 육묘기반을 지역농협, 영농법인 및 읍·면·동 권역별 공동육묘 기반 확대로 전환 사업 희망 지역농협과 현장 토론회를 거쳐 2021년 공모사업에 대응 2년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선정된 벼 공동육묘장은 고품질쌀 계약재배 및 집단화된 쌀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벼 육묘시설과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6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자부담 168백만원의 총 사업비 4억2천만원을 확보 투자하게 됐다. 그동안 벼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공동육묘 기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왔으나, 남원농협 중평부와 지리산농협 산간 고랭지의 지대별로 공동육묘 기반을 획기적으

로 확대 할 수 있어 전 농업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21년 벼 공동육묘장 선정을 계기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지대별 적기 이앙에 필요한 안정적인 모 공급이 가능하고 발아실 등 자동육묘 시설을 확보 할 수 있어 벼 육묘 실패도 거의 없는 감정이 있어 식량산업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2021년 벼 공동육묘장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해소

와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벼 공동육묘에 필요한 벼 육묘장과 시설·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2021년 벼 공동육묘장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벼 공동육묘에 필요한 벼 육묘장과 시설·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희귀식물 가침박달, 과거 남방한계선 넘은 자생지역 발견

신안군 특정도서 생태조사 중 발견



신안군은 특정도서 생태조사 중에 산림청에서 희귀식물로 지정된 가침박달의 새로운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발견은 2020년 신안군에서 실시중인 특정도서 생태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가침박달은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해안가 및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종으로 신안군 연구진들은 지난 10월 조사를 통해 신안의 특정도서에서 새로운 자생지를 발견했다. 가침박달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베이징 및 라오닝성 일대에 분포하며 중국에는 4종, 국내에서는 1종 1변이종이 자라고 있으며 변이종인 털가침박달은 잎의 뒷면에 털이 많고 황해도 및 함경도에 자란다. 가침박달은 꽃이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내음성, 내한성 그리고 내병충성이 강해 원예용으로도 우수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가침박달 발견은 전북 임실군 지역이 분포지역의 남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왔던 데 반해 분포의 남

방한계선이 새롭게 설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2012년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북방계 식물인 털가침박달군락지가 발견됐으며 신안군은 다도해서부사무소와 함께 우이도 모래 언덕 복원과 식물조사에서 900여 그루가 자생하는 국내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유전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안군 자생식물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석기자

전주시 청년희망단 위원 60명 공개모집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청년문제 발굴 및 정책 개선방안 등 모색

주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5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위원 60명을 오는 24일까지 전주청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꾸려지는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만 18~39세 청년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현황 교육과 청년희망단 활동 소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과의 멘토링, 갈등관리 교육 등 2차례의 사전교육을 거친 뒤 참여도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청년희망단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5기 청년희망단 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일자리·문화·복지 등 관심분야 팀을 구성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들을 발굴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게 된다. 이후 발표회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팀별로 제안하는 한편 타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활동도 수시로 진행한다. 시는 청년희망단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실무부서 담당직원과 추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청년 곁이어 정책과 청년 취업토크쇼, 청년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확대 등 그동안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이 시정에 반영됐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1기에서 4기에 이르는 청년희망단 위원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정책 제안활동이 전주를 청년희망도시로 만드는 계획 추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어 왔다"며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2021년 전주시 청년희망단 위원 공개모집

모집기간 | 2020. 11. 10.(화) ~ 11. 24.(화) | 모집인원 | 60명

지원자격 | 전주시내 거주·생애하는 만 18~39세 청년(예: 11.25~00.11.24 생애)

지원방법 | 전주시청청년정책지원센터(063-281-5023)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youth.jeonju.go.kr) | 1회까지 전주청년정책지원센터

신청비용 | 전주시청에 방문 및 온라인신청 시 접수비용 0원, 현장접수 시 1만원

발령일기 | 2021. 1. ~ 12.

지원분야 | 팀별 활동분야 지정, 청년수당 지급, 활동우수자 시상 등

문의 | 전주시 일자리지원정책과 | Tel. 063-281-5023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가을 감성 채워줄 주말여행지 '단양' 인기

관광1번지 단양군이 늦가을 벚차오르는 감성충전 주말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소백산, 사인암 등 주색이 완연했던 단양의 절경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함에 따라 가을끝자락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뽐내는 가곡면 갈대숲, 적성면 이끼터널, 비밀의 정원 등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가곡면 사평리부터 향산리까지 약 12km에 걸쳐 펼쳐지는 가곡면 갈대숲은 매년 가을이면 바람에 흠날리는 갈대와 억새풀이 은빛 장관을 이루며 가벼운 산책과 함께 흐드러진 갈대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어 핑크빛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양쪽 벽면에 녹음 가득한 이끼와 울창하게 뻗은 나무가 장관을 이뤄 자연터널을 만들어 낸 특별한 곳이다. '자연이 만든 걸작품'이라 불릴 만큼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아름다운 작품사진이 탄생하며 인증샷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더욱 유명해졌다.이끼터널이 초록으로 물들 때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곳을 지나면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이끼터널에서 느린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화려한 빛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단양수양개 빛터널 비밀의정원이 나온다.적성면 애곡리에 위치한 빛의 왕국 단양수양개빛터널은 국내 최초의 터널형

복합 멀티미디어 공간인 '빛터널'과 5만 송이 LED 튜립과 일류미네이션이 빛어내는 빛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의 정원'으로 이루어졌다. 야외공간인 비밀의 정원은 LED 조명에 더해 꽃과 다양한 조형물이 만들어 내는 야경이 마치 환상 속에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하며 도심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도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데이트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군 관계자는 "떠나는 가을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은 감성여행지 단양에서 관광도 즐기고 감성도 충전하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하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홍천군 인구정책의 길을 묻다

20년 제2회 인구정책 유관단체 토론회 개최

홍천군은 인구정책의 개선 또는 신규시책 발굴을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2020년 제2회 인구정책 유관단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외 27개 단체와 홍천군수를 필두로 기획감사담당관, 관련관과소장 및 담당 등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개의 주제별 그룹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서 11월 2일에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홍천을 주제로 시작해 11월 4일에는 일하기 좋은 홍천, 11월 9일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천 만들기로 3일간의 토론회대장을 마쳤다.

토론내용으로는 1차시에는 대상포진 검진비용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안이 있었고 2차시에는 귀농 귀촌인과 기존 마을사람들이 융합할 수 있는 제도 개발과 청년들의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제안이 있었다.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홍천의 아이관련 시설은 좋은 반면 면단위 지역주민과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는 시설 접근성이 어

렵다는 지적과 홍천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택, 일자리의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군은 이번 토론회의 건의사항을 기초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진하고 홍천군 인구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대전시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언택트 행사 개최

온라인 EVENT

대전시 깃대종 홈페이지 OPEN

대전의 3대 깃대종 하늘다람쥐, 감돌고기, 이끼도롱뇽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깃대종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깃대종 굿즈와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EVENT 1. 3대종 캐릭터 이벤트

대전의 3대 깃대종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캐릭터 상품을 치유하세요.

- 2020. 11. 9(월) ~ 11. 17(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100명), 현직장 2명당 1명당 상품권(2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10명) 기프티콘(20명)
- 2020. 11. 20(일) ~ 11. 22(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30명), 현직장 1명당 1명당 상품권(1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5명) 기프티콘(5명)

EVENT 2. 3대종 3대종

깃대종 홈페이지 오문을 찾아 대전의 3대 깃대종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현직장을 1명당 1명당 1명당 상품권(20명)을 받습니다.

- 2020. 11. 16(일) ~ 2020. 11. 25(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100명), 현직장 2명당 1명당 상품권(2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10명) 기프티콘(20명)
- 2020. 11. 30(월) ~ 12. 3(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30명), 현직장 1명당 1명당 상품권(1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5명) 기프티콘(5명)

EVENT 3. 3대종 삼행시!

3대종: 오뚜기, 감돌고기, 이끼도롱뇽

- 2020. 11. 16(일) ~ 2020. 11. 25(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100명), 현직장 2명당 1명당 상품권(2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10명) 기프티콘(20명)
- 2020. 11. 30(월) ~ 12. 3(수)까지: 3대종 굿즈세트(30명), 현직장 1명당 1명당 상품권(10명), 에스프리박스 상품권(5명) 기프티콘(5명)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홈페이지 개장, 홍보부스 운영 등

대전시는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기념행사를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행사는 대전의 깃대종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대전시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대전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생물인 깃대종을 홍보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자연생태에 대한 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온라인 시민참여 행사는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깃대종 소개를 받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깃대종 교육영상을 시청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깃대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깃대종 지키기 인증을 하면 귀여운 깃대종 캐릭터를 받을 수 있다.

깃대종 홈페이지 주소는 '대전깃대종.kr'이며 대전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은 모두 3종으로 산에는 하늘다람쥐가, 계곡에는 이끼도롱뇽이, 그리고 하천에는 감돌고기가 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감천 엑스포 다리 밑, 장동 산림욕장 입구 등에서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포토존 이벤트로 깃대종과 사진 찍고 문자보내기 등으로 사람들의 접촉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입목 대전시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의 깃대종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전의 자연생태적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KB오토시스, 창립35주년 기념 사랑의 백미 전달

독거노인에 1억원 상당 백미 1,781포로 지역사랑 나눔 실천

KB오토시스는 12일 아산시를 방문해 백미 1,781포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KB오토시스 창사 3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781명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식은 참석한 김신완 사장은 "후원물품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

음을 담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으며 오늘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KB오토시스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2020강원민족예술제' 열린다.

삼척민족예술단체연합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2020 강원민족예술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돕고 강원 지역 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자산을 공유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0 강원민족예술제는 전시행사와 공연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전시행사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내 삼척민예총 4개 분과에서 사진, 인형, 서예, 한지 및 섬유공예 작품을 전시하며 공연행사는 20일과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20일 삼척민예총 5개 분과에서는 부채춤와 난타, 인형극 등의 공연을, 21일 강원 민예총 8개 지부에서는 아페라와 남성중창, 한국무용 등 민

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무대와 조비 음악대의 초청공연을 펼친다.

'바다, 기억을 머금고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예술제의 개막식은 20일 저녁 7시에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관람객을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처음으로 7개 분과 160여명의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된 삼척민예총 관계자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강원지역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강원도 최남단 삼척에서부터 평화의 불꽃을 피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바다, 기억을 머금고 평화를 노래하다

2020 강원민족예술제

2020. 11. 16 MON - 21 SAT

삼척문화예술회관

주관: (사)삼척민예총
후보도, 삼척시, 삼척시의회, 삼척문화재단, 삼척문화재단, (사)강원민예총

금산군,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 기관표창 수상



금산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선정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우수성이 전국에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그랜드 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4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398개 포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 체계 적정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균형발전성과가 돋보이

는 20개 지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금산군의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해 지자체 특화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이외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합리적 노력 전개,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힘써주시는 박양우 추진위원장, 박국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업추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살기 좋은 농촌개발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변영로105번길 일원 "영랑호 먹거리마을"로 명명

동명동주민센터는 변영로105번길을 중심으로 한 상가 밀집지역을 "영랑호 먹거리마을"로 이름붙이고 지난 10월말 구역내 4개소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지역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해당 지역은 오래전부터 중앙초등학교와 설악타워맨션 인근으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영랑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2017년 말 이편한 세상영랑호아파트 입주로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이 하나들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요식업체 수만 24개소에 달하고 있다.특히 장칼국수 맛집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든식당을 비롯해

면사무소까지 변영로105번길 상에 9개의 다양한 면요리 업체가 밀려들어서 있어, SNS를 중심으로 통칭 '국수거리'로 점차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다.이에 따라 동명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명소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랑호 먹거리마을"로 거리명칭을 지정했으며 구역내 4개소에 약도형 홍보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식당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초작업, 벽화조성, 도로환경개선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속초 관광 지도, 속초 SNS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거리명칭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재일 동명동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



히 헤쳐나가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해 봤으며 앞으로 변영로105번길 일원

이 속초를 대표하는 먹거리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권기자

경북 최고 농업장인 선정. 포도명장 유창우, 사과명장 신종협

경북 농업인 대상 11명 선정. 종합대상에 서정욱씨 수상



경상북도는 올해 최고 농업장인인 '경북 농업명장'에 유창우, 신종협씨를 선정하고 '경북 농어업인 대상'에 서정욱씨를 전체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농업분야 사업성과가 우수한 영천시를 '농정 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시상했다.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동관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북 최고 농업장인인 '경북 농업명장' 2명, 농어업인인 '경북 농어업인 대상' 11명을 선정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동안 경북농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농업명장에는 유창우, 신종협씨가 선정됐으며 농어업인 대상에는 서정욱씨가 전체대상으로 선정 됐다.시량생산부 이재학, 친환경농업부 김병원, 과수·화훼부 권순찬, 채소·특작부 문배현, 농수산물수출부 김형수, 농수산 가공·유통부 박영재, 축산부 장용호, 수산부 김병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부 신동수, 여성농업인부 김숙자씨가 각각 선정됐다.포도명장 유창우씨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인머스켓 재배 전문가로 사인머스켓 재배기술 2배 향상하는데 기여했으며 사인머스켓 재배기술 교재를 집필하고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및 강의를 실시하는 등 사인머스켓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과명장 신종협씨는 높은 토지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키 큰 세장방추형 수형을 완성해 착과부위를 늘리고 햇빛 투과율을 향상시켜 생산량을 높였다.또한 전문적인 재배기술로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교수로 활동하며 선진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농어업인 대상 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서정욱씨는 사과 다축재배 전문가로 표준화된 12ha의 대형 사과농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품목의 시범재배를 실시해 재배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또한 농장개방을 통해 타 농업인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닥터 및 기술교육강

사도도 활동하고 있다.서정욱씨는 이러한 공로로 농업분야 신지식인, 농업마이스터로 선정된 바 있다.농업 신기술개발 및 전파로 경북 농업발전에 공헌한 우수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한 '경북 농업명장'은 200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38명이 배출됐으며 농업명장들에게는 인증패와 함께 상사업비 1천만원이 지급된다.지역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농어업인 선발하는 '경북 농어업인 대상'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4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이날 기념식에는 올해 농업분야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시·군을 선정해 함께 포상했다.최고의 영예인 대상에는 영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상주시와 예천군이, 우수상에는 김천시, 안동시, 의성군, 청도군이 각각 선정됐다.대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상주시는 직거래를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해 사인머스켓 등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 추진했으며 예천군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과 가축의 재해보증을 확대지원하고 청년들의 농촌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농촌소득자원을 적극 발굴한 김천시, 농촌공동체 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안동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유입한 의성군,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의 판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청도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농정 종합평가는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가 우수하고 창의적인 농정시책을 펼친 시·군을 발굴하고 우수 농정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수상 시·군에게는 도시사 표창패와 함께 대상 8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한편 이날 우수농업인에 대한 정부포상도 함께 전수되어 의성군 김홍길씨가 은탑산업훈장을, 예천군 임석중씨가 석탑산업훈장, 경주시 박익환, 상주시 이흥규, 예천군 김영경씨가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농업인의 날 축사를 통해 "든든한 경북 농업인이 있기에 코로나19와 태풍에도 흔들림 없이 자라난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촌이 더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했고 수상

정동호기자

경북 최초 4만 시간 이웃사랑실천 사회봉사상 이서락氏 수상



돈이 많아서 봉사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봉사다.

'돈이 많아서 봉사가 아니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봉사다'라며 평생 "봉사에 빠져 살다 보니 이젠 직업이 봉사자인 것 같다"고 농담을 하는 그는 이서락이다.

10일 적십자사 경북지사 양리중앙 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식 및 경상북도 2020년 연차대회에서 그동안 펼친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경북 최초의 4만 시간 사회봉사 유공장을 수상했다.늘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 회장은 "1978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당시 20주의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모두 죽었다고 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로, 한탄하던 중 몸이 조금씩 호전 되어 생활 한다는 기쁨으로 시장주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기를 시작했지요. 바로 그것이 봉사의 시작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그는 다시 살게 된 인생을 '덤'이라 표현하며 헛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새로 사는 인생 봉사로 채울 것"이라며 그렇게 1980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고 했다.그쪽 계통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그것은 140여회 복지시설위문, 200여회 청소년 및 독거노인 보살피기, 사랑의 연탄 2만7천장 배달, 재수선 옷 3만 여점 전달, 무료급식 1,000여회, 22년 동안 매년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

김영호기자

강서구, 2020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빠른 대책 높은 평가 받아

서울 강서구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 주관한 '2020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해,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구는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로 이번 대회에 접수된 총 21건의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는 기존 청소년특별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구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다.

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운영,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촘촘한 청소년 울타리 조성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기존 청소년특별지원제도의 한계점을 보완·개선하고 경찰서 보호관찰소, 교육청 등 연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

호를 위한 발 빠른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위기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구는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0년 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한편 2017년 기준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1위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상순/기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지난 11일 섬유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제34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섬유의 날'은 지난 '87. 11. 11 섬유산업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섬유패션인들의 자긍심 고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2013년에 설립된 연합회는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다각적인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 섬유사업체 수가 3%p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견인해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유공단체 표창을 받았다.연합회는 경기도 섬유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했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족패션 산업특구 지정'받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경기도 섬유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다.특히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비상대책에 대응해 '니트 항공 마스크 개발·보급'을 주도하면서 수출이 막혀 어려운 지역 내 섬유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 바도 있다.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은 "지역 섬유산업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세계시장 흐름에 맞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ICT, 의료, 산업용 제품 등 기술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에서 고도화되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기자



대구 범어 마크써밋

성남시립교향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금난새의 음악 드라마 '베토벤' 네이버 생중계 개최

성남시립교향악단은 12일 오후 7시 30분에 제172회 정기연주회를 네이버TV를 통해 무관객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금난새의 음악드라마' 시리즈 세 번째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교향곡 제1번, 제2번, 제4번, 제7번의 1, 2, 3, 4악장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국내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전하는 웅장한 선율과 소프라노 김순영, 바이올린 김혜지,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화려한 협연 무대로 큰 감동을 줄 예정이다.

위 공연은 네이버 TV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성남시립교향악단은 2003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수준 높은 공연보급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최상의 프로그램과 정상급 연주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도시 성남시를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박상찬/기자



순천시, 대통령상 수상작 '모던타임즈' 온라인 공연 개최

11월 15일 오후 5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유튜브 통해 생중계

순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5일 오후 5시에 2018년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안무상을 수상한 현대무용 '모던타임즈'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모던타임즈는 '노진환 댄스 프로젝트'의 남녀 10인의 전문무용수가 선보이는 현대무용으로 기존의 무용예술에서 접할 수 없었던 채플린 류의 슬랩스틱적인 장면구성과 유희화된 인물설정, 통속적이라 할 만 큼 대중적인 음악들을 버무려 가볍지만 진지함을 잃지 않은, 그래서 보다 많은 관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작품은 전쟁과 분단,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뉘 각각의 에피소드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압축적으로 구성했다. 찰리체플린 영화들의 주요 장면과 인물들의 모티브를 차용했으며 일상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도 친숙한 채플린의 전형적인 캐릭터와 몸



짓에서 차용한 코믹한 동작을 춤의 영역으로 확장해 개성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지원사업에도 진행되는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 문화적 격차를 좁히고 소외계층에게는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순천시문화예술회관 LIVE' 유튜브에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하은/기자

랜선 인문 치유 강좌『인문약방』성황리 종료

광명시 최초 유튜브 생중계 인문강좌 진행 및 7일간 강좌 게시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철빈)은 지난 10월 27일(화)과 11월 3일(화) 기형도문화관 대강당에서 무관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2020 오리서원 인문 및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인문약방』> 강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인문약방 강좌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채우는 '인문', '관계', '치유'를 주제로 개인과 공동체의 슬기롭고 충만한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문약방』의 첫 번째 강좌『관계 중독』(권숙영) 교수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 본질적인 나는 무엇이며 아직 본질의 나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깨달음이 오가는 내용을 강하게 담았다.

『인문약방』의 두 번째 강좌『공감의 힘』(정혜신) 박사는 어떤 치료제나 전문가의 고스펙 자격증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공감의 힘'에 대하여 강좌에 담았다.

특히『인문약방』"관계 중독" 강좌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인 "관계"에 대하여 현실적인 이야기와 질문들이 오갔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본질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통해 나다운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깨달음이 담

전순희/기자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를 만나다. 공연 '토리스토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통해 이천아트홀이 선정한 마지막 작품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토리스스토리'가 2020년 11월 14일 19시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여진다.

'토리스'는 지난 2009년 창단되어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국악과 아카펠라의 융합으로 주목 받은 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창조해 왔다.

이들은 국악에 익숙한 장년층에게 아카펠라 음악을, 아카펠라가 익숙한 청소년과 외국인에게 우리 국악의 신선함과 흥겨움을 선보이며 모두가 한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민요에서 각 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음악적 특징을 뜻하는 순수리말 '토리'들이 모여 음악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긴 그룹명으로 판소리·경기민요·서도민요·아카펠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토리스'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다성부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최초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국음악과 월드뮤직을 결합하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추구한다.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을 새로운 레퍼토리인 아카펠라 형태로 선보인다.

여기서 '눈대목'이란 판소리에서 가장 예술성이 높고 널리 알려진 대목을 말하는데, 판소리가 갖는 깊은 정서와 강렬한 에너지가 아카펠라 특유의 공명을 통해 감미롭고 다정



하게 표현된다.

2부 '민요에 취하다'는 신명나는 경기민요인 태평가를 필두로 몽금포타령, 새타령 등 익숙한 민요들을 '토리스'만의 감성으로 표현해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

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박상찬/기자

"제25회 서곶문화예술제, 온라인으로 무대를 확장하다"

연극·무용·클래식·다원 공연, VR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

이천시구문화재단과 이천시구문화예술인회가 주관하는 이천 서구의 대표 축제 '제25회 서곶문화예술제'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예술제는 코로나로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이 단절되어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무대를 선보인다.

서곶의 따뜻한 노을빛을 담은 작품들로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서곶문화예술제'는 이천 서구 예술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올해는 지역 예술인들이 의견을 모아 이천 서구의 옛 지명인 '서곶'과 정서전의 '노을빛' 이미지를 활용해 '노을빛 서곶이 떠오르다'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로 단절되고 외로운 시대에 동시대인에게 위로가 되는 예술제가 되길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종남/기자

25년 역사를 지닌 예술제, 온라인으로 무대를 확장하다 코로나-19로 축제와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는 요즘 서곶문화예술제는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 관객들을 찾아간다.

서구문화예술인회 전시협회의 미술·서예·공예·서각·문학 장르 36개 작품을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VR 전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서구문화예술인회의 삶의 평안을 기원하며 신에게 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용 공연 '봄, 여름, 가을, 겨울 and 서곶의 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천 서구의 모습을 엮은 연극 '1990년대 그라피티'와 청년들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음악 이야기를 그린 연극 '쉐어하우스' 등 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농약으로 풀어낸 '서곶에 올리는 희망의 대취타' 배뱅이굿의 뉘엿뉘엿, 서도민요의 흥겨움, 경기민요의 희망으로 국민들을 응원하는 국악 '힐링으로 다가올 우리 소리' 등, 다양한 공연이 서구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펼쳐진다.



금강철새조망대, 환경작가 김덕신 초대전 '부스럭 부스럭' 개최

폐비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아트로 환경문제 성찰 계기 되길.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철새조망대 9층 전시실에서 오는 13일부터 업사이클링 환경작가 김덕신 초대전 '부스럭 부스럭'이 열린다.

업사이클링 아트는 단순한 리사이클링을 넘어 폐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예술로 승화하는 것으로 김덕신 작가는 섬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지난 해 근대역사박물관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폐비닐을 소재로 비닐만의 색상 그대로 우리 전통색인 오방색을 표현해 들꽃과 향아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이번 '부스럭 부스럭'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계속돼 추운 겨울 가족들과 함께 할 실내 여행지를 찾는다면 관광도 하고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금강철새조망대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김덕신 작가는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면서 자연과의 조화, 공생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금강철새조망대는 AI에 따른 영향 및 기후변화로 인한 철새 감소 등으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최근 기후변화 체험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의식개선·기후행동 실천 운동에 역량을 집중해 '금강미래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3개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술 문화관, 청춘활력소45 등 주요 거점시설 연내 착공

정읍시가 12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3개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안홍준 정읍 건축사 협회장, 관련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대상 사업은 정읍 술 문화관과 연지 청춘활력소45 조성사업,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연계 방안으로 연내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읍 술 문화관은 시기동에 소재한 정읍약주 자리를 리모델링해 정읍 전통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시설과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술잔 등을 이미지화한 건물 외관

과 술 도가니 등으로 구성된 내부 전시 물품에 홀로그램과 인피니티 미러 등 첨단 영상기술을 복합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지 청춘활력소45는 40~50대 중장년층의 제2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취업 교육과 취업 정보, 워터 등을 제공하는 3층 규모의 복합건물이다. 시는 청춘활력소45가 20~30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창업 챌린지습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연계 방안은 기존 생고을시장과 연지시장, 원도심 상업지 인근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뉴딜지구와 정읍역과의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교통환경변화를 고려해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종합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

업이 본궤도에 올라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쇠퇴한 원도심에 투입되는 사업의 파급효과가 민간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시민 창업·창작 공간 동지

전주기전대학교, 11일 시민들을 위한 창업·창작 활동공간인 '전주 메이커 빌리지' 개소

전주시민들이 3D프린팅, 목공, 용접, 도색 등 다양한 창업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교는 11일 다가동 일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창업·창작 활동공간인 '전주 메이커 빌리지'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9000만원이 투입된 전주 메이커 빌리지는 연면적 535㎡ 규모의 창업·창작 활동공간이다.

이곳에는 3D프린터실과 목공소, 용접실, 도색실, 기계실, 공구도서관, 공유오피스, 교육실 등이 구축됐다.

창업자들은 이 공간에서 최신 3D프린팅 장비 등을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업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나 학생 등 누구나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창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메이커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



했다. 특히 시는 이 공간을 구도심 활성화를 주도할 복합공간으로 삼아 인근 공구거리와 한국전통문화전당, 남부시장 청년몰을 연계하는 허브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주기전대학교 관계자는 "전주 메이커 빌리지"를 일반 시민, 학생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메

이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메이커 빌리지가 전주 창업·창작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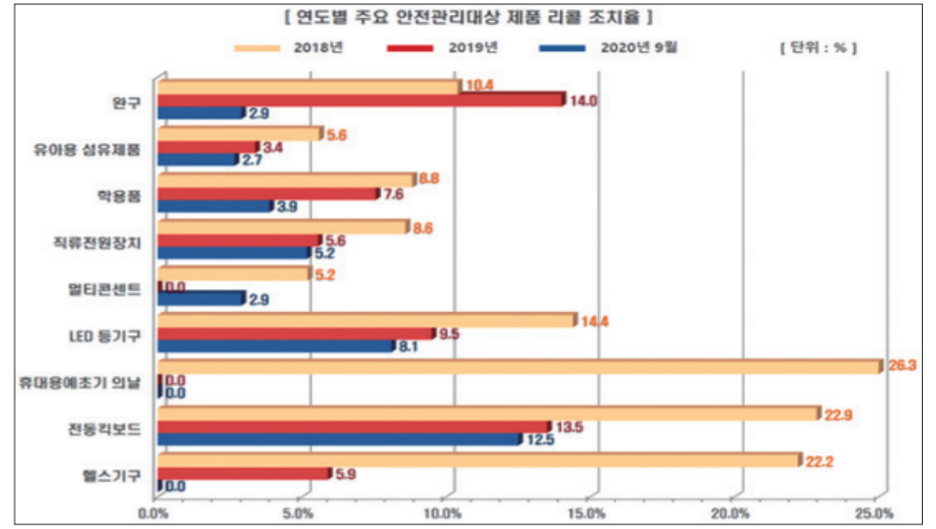
'2020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훈·포장 수상자 등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공모전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최근 우리 사회의 제품안전 척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인증 및 확인건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대장수는 '17년 대비 각각 38.4%, 9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9월 기준 리콜제품 회수율과 수입제품 위반율은 54.7% 및 23.9%로 나타나며 '17년 대비 각각 12.5%p, 6.5%p 만큼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조치율은 학용품, LED 등기구, 헬스기구 등의 제품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위해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을 주제로



개최된 '2020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2회째인 이 행사는 전국 167개 초등학교에서 39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3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다만, 시상은 최우수상 1점만을 기념식에서 직접하고 남은 12점은 수상자의 각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우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전반에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뉴노멀시대가 도래했으며 제품안전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

이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비대면 방식의 KC 인증 공장심사 검토를 추진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명심하고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사용 시 반드시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찬/기자

경북교육청, 사학 시설사업 책임 컨설팅제 도입

사립학교 시설사업 계획부터 완공까지 책임시공 지원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학 시설사업 책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학 시설사업 책임 컨설팅제는 기술직공무원이 사립학교 시설사업 계획부터 기술자문, 공사관리와 감독으로 준공 시까지 책임 시

공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지도·점검 시 안전점검 등 경찰 활동 병행,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부터 준공까지 책임 컨설팅 실시, 주요 사업별 및 지역·학교별 전담 기술직공무원을 지정 운영한다. 또한 기존 일부 사업에 대해 공사감리를 의뢰하던 것을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 활성화를 권장해 부실시공 방지 등 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경북교육청은 사학 시설사업 책

임 컨설팅제 도입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국 행정지원과장은 "책임 컨설팅제 시행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 간담회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미추홀구 대화의실에서 대규모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구가 시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대형 민간 건설사업 현장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지역업체 관계자 및 미추

홀구 관련부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흥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미추홀구위원장은 "지역 입찰참가 확대 등 지역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GS건설 등 현장관계자들은 "미추홀구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건설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과 같이 일하고자하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